

# 브라보! 안산

## BRAVO ANSAN

NO. 411 / ANSAN CITY NEWSPAPER

###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 ④ blog.naver.com/cityansan
- ① facebook.com/ansancity3
- ① twitter.com/ansancityhall
- ③ story.kakao.com/ch/ansancity

발행일 2016년 1월 13일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 FAX 031.481.3224 / E-mail bravo@iansan.net

2016. 01. 13



# ‘안산 천년의 종’ 타종 꿈과 희망의 새해 기원행



2015년 12월 31일 제야의 밤, 화랑유원지 단원각에서는 새해를 여는 ‘안산 천년의 종’ 타종 행사가 열렸다. 단원각 종루 앞에는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달집소지에 버릴 액(厄)과 받고자 하는 복(福)을 적고, 신년 운수를 보며 타종을 기다렸다. 11시 30분이 되자 색소폰과 호른, 트럼펫을 든 안산팝스오케스트라는 ‘성자행진곡’, ‘사랑은’, ‘옐로우리본’을 연주했으며, 안산시립합창단은 ‘경복궁타령’, ‘소나무야’, ‘우정의 노래’, ‘희망의 나라로’를 부르며 새 희망을 노래했다. 을미년(乙未年) 한 해가 가고 병신년(丙申年)이 새롭게 열리는 자정이 되자 33번의 종소리가 깊고 넓게 울려 퍼졌다. 안산시 관계자, 안산시의회위원장, 안산문화원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시민 대표들이 타종을 하며 2016년 새로운 희망을 기원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2016년은 안산시 승격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그간 역동적인 시간을 보내며 눈부시게 성장한 안산시가 새로이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며, ‘상상 그 이상의 도시’라는 꿈이 현실이 되는 해가 되리라 확신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신년메시지 낭독에 이어 달집태우기가 진행됐다. 생솔가지와 짚 등을 쌓아올린 무더기에 대나무를 넣어서 그것이 터지는 폭음으로 마을의 악귀를 쫓으며 질병도 근심도 없는 밝은 새해를 기원하는 세시풍속이다. 활활 타오르는 불빛에 비친 사람들의 얼굴이 새로운 희망으로 붉게 물든다. 시민들은 버리고 싶은 액으로 가정불화, 담배, 화, 게으름 등을 적었으며, 받고 싶은 복에는 주변인들의 건강, 합격, 행복, 화목한 가정, 취업 등을 소원했다. 김은혜 씨(고잔동, 24세)는 “안산시에서도 타종식 행사가 열린

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집에 있으려다 날씨도 푸근하고 뭔가 새로운 기분을 맞고 싶어서 가족과 함께 왔어요. 생각보다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시민과 함께 새해를 맞는 기분이 참 좋네요. 새해에는 우리 가족과 시민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 다.”라고 말했다. 백송희 학생(양지중2)은 “3학년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요. 친구들과도 지금처럼 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환하게 웃었다. 이날 타종행사 마지막 순서로 띄운 알록달록 풍선이 희망으로 반짝이며 새롭게 밝아오는 2016년의 밤하늘을 수놓았다.

신선영 명예기자 \_ woghkah@hanmail.net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_ econojin@naver.com

## “도심 속 겨울왕국에서 신나는 겨울을 보내요”

### 호수공원 눈꽃테마파크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상록구 사동 1513번지)에 야외스케이트장과 미니 눈썰매장 등 놀이시설을 갖춘 ‘눈꽃테마파크’가 개장했다. 지난 12월 25일, 약 1천여 명의 시민이 눈꽃테마파크를 찾았다. 푸근한 날씨에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이들과 함께 도심 속 스케이트장을 찾은 가족들이 매표소와 스케이트장 입구에서 길게 줄을 서 있다. 정빙을 마친 얼음 위로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균형을 잃고 엉덩방아를 찧는다. 한 아이가 슬라이딩을 하자 또래 친구들은 아예 얼음 위에 드러눕는다. 이내 안내요원이 이들을 제지하고 꾸러기들은 빠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킁킁댄다. 반대쪽에 아빠와 딸의 모습이 보인다. 걸음마를 배우듯 아빠의 손에 오뎀을 의지하며 걷는 딸과 그런 아이를 끌어주는 아빠의 눈길은 다정하다. 자전거가 그렇듯 잡고 있던 손을 놓아 주자 아이는 바빠 두 발을 지치며 앞으로 나아간다. 노란 바지에 빨간 스키점퍼를 맞춰 입은 자매는 한두 바퀴 돌고 난 뒤 감을 잡은 듯 뽕뽕 달린다. 얼음 위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남녀 커플 한 쌍이 아이들 속에서 크리스마스를 만끽하고 있다. 윤지혜 씨(36세, 화성시)는 “안산에 살다가 몇 해 전에 매송으로 이사를 했어요. 얼마 전에는 중앙도서관 북콘서트에도 참여했구요, 주말마다 영화를 보거나 문화생활을 하러 자주 오게 되네요. 겨울마다 문화광장 스케이트장을 이용했었는데, 호수공원에 있으니 주차하기도 편하고 시설도 더 좋네요.”라

고 했다. 내년 2월 14일(일)까지 운영하는 호수공원 눈꽃테마파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천원이다. 그 외 장비대여료는 야외스케이트 2천 원, 얼음썰매 천 원이다. 스노우 트라이웨이, 스노우 어린이카트, 어린이자동차, 어린이기차 등 익스트림레저도 유료로 운영한다. 스케이트를 탈 때는 장갑과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는 비용에 포함되어 있지만 장갑은 지참하거나 매점에서 구입해야 입장할 수 있다. 야외스케이트장은 하루 3타임(10시~12시, 12시 30분~14시 30분, 15시~17시)으로 운영하며 30분씩 빙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 안산 눈썰매장

초지역 뒤편 ‘안산 눈썰매장’(단원구 동산로 179)은 2월 21일(일)까지 운영한다. 웨이브 슬로프, 유아용 슬로프, 손썰매장과 영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박치기 기차, 우주선 등 놀이시설을 갖췄으며 무빙워크를 타고 슬로프 꼭대기로 이동할 수 있다. 입장료는 성인 7천 원, 청소년 5천 원, 어린이 4천 원이다. 놀이기구와 빙어잡이 체험은 별도의 요금을 받는다. 10명 이상 단체는 사전 예약을 통해 평일(월~금) 선착순 500명까지 50%를 할인해준다. 썰매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에는 슬로프가 중단된다.

문의 : 눈꽃테마파크(031-491-3093), 안산 눈썰매장(031-8085-7444)  
신선영 명예기자 \_ woghkah@hanmail.net



# 병신년(丙申年) 새해 나의 포부는 이렇습니다

## 10대부터 70대까지, 새해를 맞이하는 안산시민들의 신년계획

새해가 주는 설렘은 느슨해진 마음을 다잡기에 안성맞춤이다. 붉은 원숭이 해를 맞은 안산시민들은 어떤 소망을 품고 있을까. 12살 초등학생부터 77세 어르신까지 2016년 새해에 품은 계획에 대해 물어보았다. 늘 계획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계획할 만큼 중요한 우선 순위는 무엇인지, 또 행복한 삶을 위해 버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숙제 미루지 않기부터 취미생활하기, 봉사활동하기, 운동하기, 자기계발 하기, 걱정하지 않기 등 자신의 삶을 더욱 풍성

하게 만들기 위한 작은 다짐들이 2016년 한해를 가득 채울 모양이다.

### ‘작심 365일’ 이렇게 해보세요

새해에 계획한 크고 작은 일들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작심삼일이 정말 삼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사흘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또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되 세부적으로 나눠 작은 목표

설정하기, 친구나 가족들과 목표를 공개하고 공유하기, 가지고 있던 습관 이용하기(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마시기 전에 스트레칭, 운동하기), 계획 대안 마련하기(많이 먹었다면 다음날 소식하기, 운동 더 하기), 수시로 진행사항을 적고 확인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계획을 관리한다면 올 연말에는 조금 더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김은미 명예기자\_iami34@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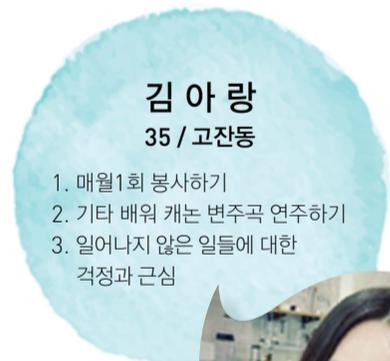
**장원희**  
12 / 본오동

1. 학교 갔다 오면 숙제해놓고 놀기
2. 초등학교 입학하는 동생과 안 싸우는 너그러운 형 되기
3. 손톱 뜯는 버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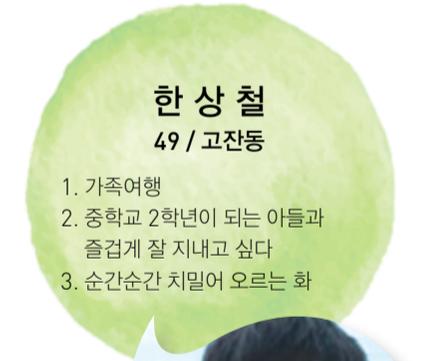
**황정원**  
50 / 고잔동

1. 운동하기, 자전거 여행
2. 컴퓨터 자격 취득, 자전거 여행, 봉사활동
3. 마음속에 있는 욕심

**김아랑**  
35 / 고잔동

1. 매월1회 봉사하기
2. 기타 배워 캐논 변주곡 연주하기
3.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



**한상철**  
49 / 고잔동

1. 가족여행
2. 중학교 2학년이 되는 아들과 즐겁게 잘 지내고 싶다
3. 순간순간 치밀어 오르는 화

1. 지난해에 지키지 못한 새해 계획은?
2. 새해 꼭 하고 싶은 것은?
3. 새해에 가장 버리고 싶은 것은?



**최윤남**  
61 / 본오동

1. 자원봉사 200시간 채우기
2. 컴퓨터 자격증 취득해 어르신들께 컴퓨터 봉사하기
3. 같이 사는 막내딸(시집보내기)



**권동욱**  
28 / 고잔동

1.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되기
2. 건강 유지하고, 둘째 낳기, 15년에 지키지 못한 좋은 아빠, 좋은 남편되기
3. 살, 육하는 성질, 머릿속 잡생각



**김쉬현**  
77 / 사사동

1. 운동, 중국어 공부
2. 운동, 컴퓨터 자격증 취득, 중국어 회화공부
3. 나이 들에 따른 고독감, 젊은 듯한 착각, 욕심

MADE  
IN ANSAN  
기업탐방



## 방독면 안경 · 공군 조종사용 선글라스를 생산하는 다운옵틱

26,870원이 없어 시작된  
기업인의 길



**다운옵틱 정차동 대표는 애국자다.**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일자리 창출이 반가운 요즘 연 매출 11억 원의 가족기업에서 자그마치 가족 포함 2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군납용 방독면 안경과 공군 조종사용 선글라스, 산업용 안경을 생산하는 다운옵틱은 1990년 설립됐다. 정차동 대표가 생산직 사원 16명과 함께 직접 제품생산과 기술개발, 품질관리를 한다. 부인은 남편을 도와 회계업무를 맡고 있다. 최근 대학원 공부를 마친 큰아들은 홍보·마케팅 일을 하면서 가업을 잇고 있고 둘째 딸은 서류정리 등 사무를 담당한다.

올해 57세인 정차동(1959년 생) 대표가 안경과 인연을 맺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다. 어떻게 안경제조업을 하게 됐는지 묻는 기자에게 정 대표는 26,870원을 납부하라는 오래 된 입학통지서를 보여줬다. 입학시험에 합격은 했지만 입학금이 없어서 진학하지 못한 고등학교의 빚바랜 입학통지서. 그랬다. 정 대표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 대신 구로공단의 한 업체에 들어가서 안경 만드는 일을 배웠다. 다운옵틱은 그 때 배운 기술이 시작이 돼서 세운 기업이다. 회사와 관련해 한 가지 덧붙인다면 사명 '다운옵틱'의 다운은 아들 이름이기도하다.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하고자하는 정 대표의 의지가 담겼다.

그 당시 공장에서 무엇이든지 배우려는 성실한 자세를 인정받은 정 대표는 2년 후 영등포공고 기계과 산업체 특별학급에서 고교과정을 마쳤다. 군 복무 후 서울 천호동 소재 안경제조사에서 일하면서 신혼살림을 꾸리게 되었는데 48만 원 월급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고 앞날을 설계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신혼 방 옆의 한 평 반짜리 공장이었다. 낮에는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 소규모로 주문받아 납품을 시작했는데 한 평 반짜리 공장에서 첫 달 나온 수익이 월급의 4배가 넘는 180만 원이었다. 정 대표는 그 후 다니던 공장을 그만뒀고 본격적으로 자기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했다. 이 때 작지만 자기만의 공장을 마련한 곳이 단원구 와동으로 1990년 12월 안산에 정착하게 됐다. 이곳에서는 지체장애인 5명과 필리핀인 5명도 고용했다. 생산한 제품은 안양의 수출회사에 납품했다. 1993년도

에는 회사규모가 커져 부곡동에 더 큰 장소를 마련해 공장을 옮겼다. 이 때에도 제품은 미국, 브라질,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지로 수출하는 회사에 납품했다.

현재의 월피동 공장은 정 대표가 2004년에 단독주택을 구입해 공장지로 사용하다가 최근 4층으로 새로 지은 것이다. 1, 2층은 렌즈 창고와 가공실로, 2층은 메탈 테용접과 포장실로 사용하고 있고 3층은 사무실과 회의실·연구실, 제품개발실로 이용 중이다. 4층에는 정 대표와 가족들의 살림집이 있다.

다운옵틱은 8·90년대 안경업계의 리더 격인 (주)서전의 부도로 서전이 맡고 있던 방독면 안경과 조종사 선글라스, 산업용 안경 등의 시장에 참여하게 됐다. 2004년 공군 조종사 안경 개발을 시작으로 2009년도에는 제조되거나 수입된 의류기기의 안정성 확보와 품질 수준을 인증하는 GMP인증을 받았고 2010년도에는 방독면 안경과 관련해 특허를 획득했다. 2012년도에는 한국 폴리텍 대학에 의뢰해 육군용 전투안경의 디자인을 새롭게 고안했다. 2010년도에는 공군을 비롯해 삼군에 전투용 안경 7만 개를 납품하는 실적을 올렸고, 2015년도에는 18만5,000개로 납품 규모가 늘어났다.

정차동 대표는 방독면 안경을 계속해서 납품할 수 있다면 “값싸고 품질 좋은 최고 상품을 만들어 국민 세금도 적게 들고 국방예산도 절약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새해에는 선글라스 기능과 방탄·방풍 기능, 시력 보완 기능과 클립기능이 가능한 다기능 복합 안경을 개발할 계획으로 특허출원을 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다운옵틱의 새해 매출 목표 30억 원이 다기능복합안경의 성공으로 무난히 달성될길 기대해본다.

백미란 명예기자\_ whity0218@naver.com

문의: 다운옵틱 ☎031-485-6751

<http://daunoptic.modoo.at/>



# 북뮤지션 제갈인철의 문학과 인생 이야기

문학은 노래다.  
북뮤지션은 문학의 감동을 전하는 일



제갈인철은 2007년부터 소설을 노래로 표현하는 작업을 해 지금까지 150여 곡을 창작했고, 600회 이상의 현장 공연을 통해 사람과 문학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초지작은도서관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제갈인철을 만났다.

**Q '북뮤지션'이라는 분야가 참 생소합니다.**

**A** 북뮤지션은 문학의 감동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활자를 눈으로 읽을 때와 낭독할 때, 노래로 불렀을 때와 닿는 감동은 조금씩 다릅니다. 책은 눈으로 읽어도 그 속에 침묵의 음악이 있습니다. 낭독을 하면 책은 한 개의 음을 가진 노래가 됩니다. 제가 해온 작업은 '한 개의 음을 가진 낭독을 여러 개의 음을 가진 낭독으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책 노래가 갖는 의미이고, 제게 있어 문학은 곧 노래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에서 나온 이야기를 노래에 실어 사람들 사이에 메아리로 울려 퍼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Q 북뮤지션이 된 계기가 있나요?**

**A** 그날을 어찌 잊을까요? 활자가 솜사탕으로 변하여 내 입속으로 마구 들어오던 밤을... 내 생애 처음으로 책을 읽다가 새벽을 맞은 대학 신입생에게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은 솜사탕처럼 다가왔습니다. 이후 저는 박범신의 사막으로 걸어 들어갔고, 수많은 이름들이 제 마음의 눈발을 경작해주었어요. 직장에 다니던 10년간은 책을 손에서 놓고 있었어요. 사업에 실패해 절망에 빠져있을 때, 문학이 제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단 10분이라도 잠이 들기를 바라던 밤에 다시 문학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행복은 열성이고 불행은 우성'이라던 조경란 소설의 한 대목이 행복의 유전자를 꾸준히 키워내야 한다는 의지를,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과 닮은 소설들을 읽고 진심으로 놀러 쓴 글을 블로그에 적기 시작했고 '파워블로거'가 되면서 글로 쓰는 리뷰를 노래로 바꿔보는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Q 지난 여름, 중앙도서관에서 성석제 작가의 「투명인간」을 노래하셨죠? 그 노래에 어떤 마음을 담으셨는지요?**

**A** 이 소설을 읽으면 독자들은 저마다의 김만수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투명인간」의 많은 페이지가 제 눈물로 얼룩졌던 것은 주인공 김만수에게서 내 형의 인생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저로서는 이 가슴 뜨거워지는 작품을 한낱 소설이라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이 다하도록 미처 보지 못할 수도 있었던 소중한 일, 소중한 사람, 소중한 가족을 문학은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Q '먹고살기 힘든 세상에 문학이니, 책이니 하는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A** 사람들이 문학을 멀리하는 이유는 사는 데 유용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문학은 우리 인생을 일으켜 세울 힘이 충분히 있어요. 저는 그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생의 깊은 나락에서 저를 구해준 문학의 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언제나 무대 위에서 객석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중에 몇 명은 오늘 문학을 만나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오늘도 저는 제 문학 이야기와 노래를 듣고 문학을 가까이하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나기를 바라며 어디든 달려갑니다.

문의 : [biog.naver.com/icjackal](http://biog.naver.com/icjackal)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n@hanmail.net

## 책 읽는 안산 / 1월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이야기들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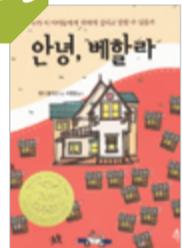


### 노숙자 폴로와 쥐

저자 마갈리 에르베르 / 출판사 한림

프랑스 작가 마갈리 에르베르는 첫 동화 「노숙자 폴로와 쥐」에서 비루한 삶을 사는 노숙자와 쥐, 둘의 평범하지 않은 만남을 다룬다. 기존 어린이 문학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노숙자'와 '쥐'를 주인공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서로의 존재감을 통해 잃어 버렸던 삶의 희망을 갖는 과정을 담담하지만 독특한 방식으로 그리는 동화다.

청소년



### 안녕, 베할라

저자 앤디 멀리건 / 출판사 다룬

매일 쓰레기를 주우며 살아가는 주인공 '라파엘'은 어느날 우연히 '그걸' 발견한다. 그러면서 복잡하고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만 동시에 태어나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도 갖게 된다. "안돼 비밀이니까!" 라고 외치는 라파엘이 발견한 '그것'은 무엇일까? 미국도서관협회 최고의 책, 영국 인디펜던트지 올해의 십대 책으로 선정된 이 작품은 작가가 필리핀의 마닐라에 거주하면서 방문했던 쓰레기 마을 '베할라'를 배경으로 쓴 작품이다. 실제로 그곳의 아이들은 평생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다. 부패, 빈곤, 낭비, 과소비 등의 문제 속에서 재치 넘치는 세 아이들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다.

성인



###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저자 히가시노 게이고 / 출판사 현대문학

히가시노 게이고 하면 떠오르는 살인 사건이나 명탐정의 추리 대신, 그 동안 작품에서 보여주었던 인간 내면에 있는 선의에 대한 신뢰가 전면에 나섰다. 뚜렷한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세 명의 젊은이에게 일어난 하루밤 동안의 신기한 일은 단순히 기묘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는다. 좀도둑 삼인조는 한마디로 '제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보내는 솔직한 답장 편지는 상담자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된다. 또, 이 세 사람도 고민 상담을 해 주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다. 결국 서로가 서로의 인생에 기적을 가져다 준 것이다.

자료제공 \_ 중앙도서관

# 시간을 새롭게 체험하는 8가지 방법 경기도미술관에서 8명의 '시간수집자'를 만나다

일상이 지루해질 때 미술관에 가면 때론 새로운 자극을 얻게 된다. 이때 미술관은 낯선 시공간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 1월 24일까지 경기도미술관에서 열리는 '시간수집자' 전시는 그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결을 다시 섬세하게 경험하게 해준다.

이번 전시는 경기문화재단 전문예술 창작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경기지역 유망 작가 8명의 신작을 선보이는 연례전으로,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8개로 구획된 공간에서 8작가의 독립된 작품전시와 작업을 함께 도왔던 평론가들의 해설을 볼 수 있다. 이창훈, 고창선, 박은하, 김준, 전명은, 정희정, 장영원, 이지영 작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는 여러 작가의 시각으로 시간의 의미를 다채롭게 체험해 볼 수 있게 구성됐다.

전시장에 처음 들어서자마자 만나게 되는 이창훈 작가의 작품은 '시간수집자'라는 제목에 가장 어울리는 주제를 담고 있다. 똑같은 사진으로 된 다른 년도 1월 벽걸이 달력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 '수평적 리셋'이란 작품은 달력으로 인식하게 되는 1년이란 시간 간격의 한계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반면 작업용 탁자 위에 칠판을 설치해 작가의 작업과 삶의 흔적을 매일 기록한 '예측 가능한 불확실'이란 작품은 작은 탁자위에서도 매순간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시간의 역동성을 느끼게 한다. 관람객들에게 작품을 설명하던 도슨트 김혜진씨는 "매일 담배 한 개비씩을 종이에 태워서 1년 달력 모양을 만든 이창훈 작가의 작품에는 하루라는 시간의 깊은 아쉬움이 담겨있다."며 "처음 보는 관람객들은 큰 호기심을 갖고 작품을 보면서 애벌레 모양 등 다양한 상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미술관 바닥과 벽, 천장으로 커다란 해와 달이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고창선 작가의 작품은 한참동안 지켜보게 될 만큼 시각적으로 눈에 띈다. '관심받고 싶어하는 푸른 달'이란 이 작품은 무형의 시간 개념을 매일 뜨고 지기를 반복하는 해와 달을 통해 보여주며,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시간 변화에 주목하게 만든다.

김준 작가는 사운드를 활용한 작품을 선보인다. '장소의 발현'이란 작품은 작가가 영국, 독일 등에서 녹음한 소리와 사진을 함께 전시해, 음향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체감하게 되는 세계와 시간의 흐름을 직접 느끼게 해준다. 삶의 한 장소였던 공간이 깊숙이 내포하고 있는 소리를 하나하나 채집해, 작가가 아니었다면 결코 들을 수 없었을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

전명은 작가의 '새와 우산' 시리즈는 효과맨들이 특정한 사운드를 재현하는 과정을 통해 청각이 이미지화가 되고 이미지가 청각화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준다. 발소리를 증폭하여 들려주는 사운드 터널을 지날 때는 소리만으로 다양한 이야기와 이미지를 상상해 보는 특별한 체험도 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단층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보여준 '시간수집자' 전시를 관람하고 밖으로 나오면, 어쩐지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전시장에서 발견한 문구처럼 '시간수집자'는 8명의 작가가 만들어낸 세계를 통해 '무심코 지나가버리는 시간의 섬세한 아름다움과 낯선 긴장'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경험을 남긴다.

한편 경기도미술관은 전시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장경원 작가와 함께하는 'n의 시간'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나만의 시간을 탐구해보는 프로그램으로 1월 9일과 16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운영된다. 또, 가족 간에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상상을 나누는 '시간을 달리는 가족'은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가족만의 타임캡슐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경기도미술관 홈페이지 <http://gmoma.ggcf.kr>  
송보림 명예기자 \_ treehelper@naver.com



작품설명

- 1. 김준, 장소의 발현 / 2. 이창훈, 예측불가능한 불확실
- 3.4. 고창선, 관심받고 싶어하는 푸른달 / 5. 이창훈, 희망

# 색이 만들어내는 수만 가지 이야기

어린이 꿈★틀 교육전시 '컬러풀'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색을 예술 작품을 통해 새롭게 바라보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 경기도미술관 어린이 꿈★틀에서는 8월 23일까지 '컬러풀'전을 연다. 미술의 기본 요소인 색을 주제로 경기도미술관 소장품 40여점을 새롭게 해석한 이번 전시는 공통된 색을 사용하는 여러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하면서 하나의 색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감정과 의미를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먼저 색의 시작과 끝에 있는 무채색 작품들은 단순함이 주는 삶의 아름다움을 던지시 이야기한다. 종이에 얇은 먹선으로 그려낸 박성수의 '삼형제의 막내'는 큰 존재감이 없지만 주어진 제 몫을 해내는 삶을 담백하게 표현하고 있다. 하얀 플라스틱 모듈로 만들어진 이기일의 로봇 '프로파간다'는 전시실 천장에 매달려 부드럽고 경쾌한 에너지를 전달한다. 반면 특정한 색을 통해 사회적으로 주입된 관습과 관념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지기도 한다. 김희정의 '핑크 그리고 화이트 프로젝트'는 분홍색으로 곱게 칠해져 위아래로 꽉 막힌 벽, 새하얀 가루가 뿌려져 본래 모습을 감추고 있는 선흥색 라즈베리 케이크를 통해 여성에게 외적으로 아름다워 보일 것을 강요하는 사회적 관습에 대해 말한다.

또, 지우와 콜이라는 어린이가 각자 제 방에 있는 핑크색, 파랑색 물건들에 둘러싸여 사진을 찍은 윤정미의 프로젝트는 소비사회가 만들어낸 색채기호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이번 '컬러풀'전의 가장 큰 특징은 전시장 안에서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세분화된 체험교육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6세부터 10세 대상 어린이 프로그램 '색색 무슨 색'은 색의 느낌에 대해 알아본 후, 투명우산에 아트 페인트를 사용해 비와 바람과 같은 대상의 색을 상상하고 그려 볼 수 있다. 청소년 프로그램 '내친소\_내 친구의 컬러를 소개합니다'는 다양한 색이 가진 상징적 의미와 감정을 살펴보고 반 친구를 대변하는 색을 찾아보는 시간이다. '무한 색 도전'은 가족 구성원의 성격에 맞는 색을 찾아 자유롭게 표현해보는 가족 대상 프로그램으로 염색용 크레용으로 에코백을 개성 있게 꾸며 가져갈 수 있다.

'어린이 꿈★틀' 전시관은 앞으로도 색, 공간, 형태 등 미술의 기본 요소를 다루는 주제들로 매년 새로운 교육 전시와 미술 수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송보림 명예기자 \_ treehelper@naver.com

작품설명

1. 윤정미, 블루프로젝트 / 2. 윤정원, 최고의 사치



# 안산 어촌민속박물관 재개관,

3개 전시관에 새로운 유물과 이야기가 가득

겨울방학이 시작됐다. 추운 날씨에 움추러들기 마련인데 가족과 함께 뜻 깊은 방학을 위한 체험학습을 즐겨보자.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이 2달여 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재개관에 들어갔다. 대부도에서 출토된 고유물과 갯벌을 터전으로 살아온 주민들의 민속 유물 등을 새롭게 선보인다.

2006년에 개관한 어촌민속박물관은 대부도 해안에서 출토된 유물을 비롯해 안산 일대와 대부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온 사람들의 민속 문화를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제1전시실은 갯벌의 생태계와 기능, 염습지역·갯벌지역·연근해지역의 생물, 조개 체험을 통해 갯벌을 보다 가까이에서 느껴볼 수 있다. 대부도 갯벌에서 살고 있는 생물 진공표본을 통해 각 생물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생물들이 파고 들어간 서식굴의 형태와 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

제2전시실은 대부도에서 수집한 다양한 어구를 통해 생물별 어업방식과 각 마을별 어로활동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대장간과 어선의 조타실도 들여다보고 대부도의 전통 먹거리도 확인할 수 있다. 맨손어업, 전통어업, 양식어업 등을 이해해보고 대형지도와 터치스크린과 어구모형을 통해 마을별 어업활동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제3전시실은 공룡발자국 화석에서부터 신석기 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역사의 흐름에 따라 대부도의 옛 흔적들을 유물과 함께 전시하고 있다.

채석장이던 대부 광산에서 출토된 7,000만 년 전 백악기 공룡발자국화석부터 조선시대의 역사까지 대부도의 역사를 주요 유물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박재홍 학예연구사는 "수족관에는 어떤 어종이 살고 있는지, 갯벌 생태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업활동에 사용한 도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대부도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대부도에서 살아온 옛 사람들의 생활 등을 상상해보면서 박물관을 둘러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박물관 앞에 있는 누에섬등대전망대를 둘러볼 수 있어 더욱 좋다. 안산9경 중 하나인 탄도바닷길도 걸어보고 전망대에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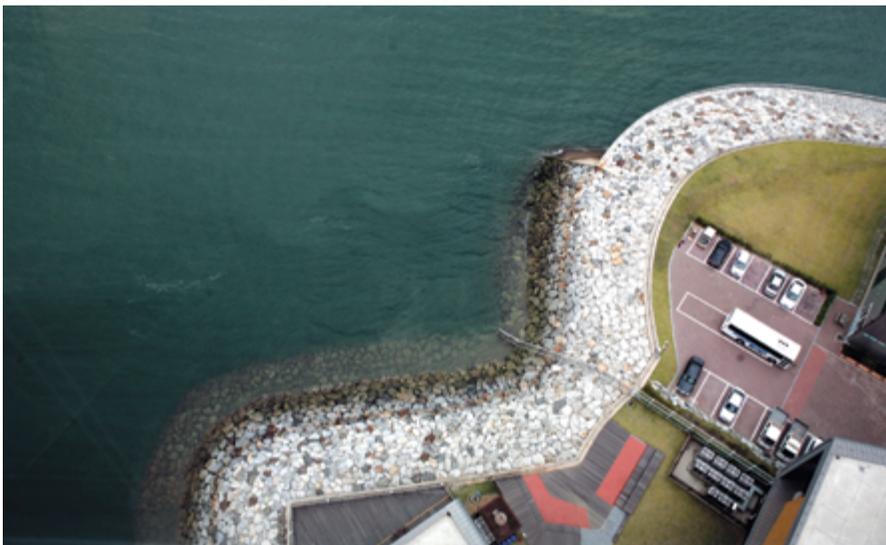
문의 : 안산어촌민속박물관(032-886-2912)  
이선희 명예기자 \_ iamyou70@hanmail.net

관람안내

관람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5시 30분까지 입장  
매주 월요일, 1월 1일, 추석은 휴관  
3D입체 영상실은 평일 이용 시 사전예약을 통해 관람 가능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매 정시 상영

어 른 2,000(20세~64세) / 단체 1,500 / 65세 이상 무료  
청소년/군인 1,500(14세~19세) / 단체 1,000 / 중, 고등학생  
어린이 1,000(7세~13세) / 단체 700 / 6세 이하 무료  
\* 단체는 20명 이상





친환경적으로  
구성된  
해상공원,

## 시화나래조력공원

T-Light 공원의 새로운 이름



## 75m 고공에서 바라보는 서해

물길을 가르며 달리는 듯한 쾌감으로 시화방조제를 달리면 시화나래조력공원이 나온다. 시화나래조력공원은 T-Light 공원의 새로운 이름으로 올 8월 15일자로 이름이 바뀌었다. 시화나래 수변도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네이밍이다.

시화나래조력공원은 조력발전소 주변 15만㎡에 조성된 공원으로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만들었다. 서해바다의 물결과 신재생에너지의 순환을 주제로, 조력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이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된 해상공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공원은 크게 잔디마당, 달빛 광장, 스마트 가든 등 여가공간과 파도소리쉼터, 바다전망대, 이야기 산책로, 바다계단 등의 휴식 공간, 휴게소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춘 공원이다. 해상공원인 만큼 푸른 바다를 구경하며 공원을 누빌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졌다. 가족단위 관광객이나 연인들이 많이 찾는 낭만적인 해상공원. 안산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많이 찾는 공원으로 이름이 알려졌다. 특히 대부도를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빼놓지 않고 들르는 관광명소이기도 하다.

공원의 큰 특색은 시화나래조력문화관을 둘러볼 수 있다는 것

이다. 조력문화관은 국내 최초, 세계최대 시화호 조력발전의 성공적인 사업준공과 신재생에너지의 선진적 기술력을 기념하고 국가경쟁력을 선도하고자 2014년 6월 25일 개관했다. 달이 만들어내는 무한 청정에너지를 상징하는 디자인 개념으로 만들어진 달전망대와 통합 전시관이 있다.

75m높이에 있는 달전망대에서는 발전소와 시화방조제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해바다와 시화호의 푸른 물결을 훤히 내다볼 수 있다. 카페와 화장실이 있고 한쪽 바닥을 유리로 만들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을 체험해 볼 수도 있다.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마시는 커피 한 잔의 낭만이 느껴지는 곳이다. 달전망대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용가능하다.

시화방조제를 달리면서 많이 보았을, 우뚝 솟아있는 달전망대의 디자인은 조력발전의 근본이 되는 달을 형상화한 전망대와 무한 청정에너지를 상징하는 무한대(infinity, ∞)를 결합하여 구성되었다.

전시관은 어린이에너지 놀이방, 시화호 역사존, 달의 선물존, 시화나래 조력 발전존 등 다양한 감성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3층 조그마한 갤러리에서는 다양한 미술작품도 만날 수 있다.

2월까지의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월부터 11월까지의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휴관이다.

또한 시화나래조력공원은 서해로 넘어가는 일몰의 장관을 볼 수 있다. 수면 위를 붉게 물들이며 바닷 속으로 풍덩 빠지는 풍경이 장관이다.

시화나래휴게소는 공원을 이용하면서 휴게 편의를 제공하고 자 개소됐다. 1층 본매장에는 음식점, 편의점 등이 있으며 가 판매장에는 호두과자 어묵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2층에는 미니홍보관이 있고 옥상에는 작은 미니 공원이 있다.

시화호조력발전소는 밀물 때 바닷물을 유입하여 발전하고, 썰물 때 바닷물을 배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간 발전량 552백만kWh로 50만 도시 가정용 전력공급 규모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로써 대체에너지 개발로 에너지수입비용을 절감하고 청정에너지 개발로 대기환경 오염을 저감과 해수유통으로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보고회 개최

## 22일 의원전체회의서 의원연구단체 3개팀 활동사항 최종·중간 보고 실시



안산시의회가 22일 의원전체회의를 개최해 '안산 문화·해양 관광자원 발굴·개발 연구회'(연구책임의원 홍순목, 이하 관광자원 연구회)와 'Original 안산! 안산 통신사'(연구책임의원 이상숙, 이하 안산통신사), '안산 스포츠 플러스'(연구책임의원 김정택, 이하 스포츠 플러스) 등 의원연구단체 3개팀의 최종(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들 연구단체들은 각각 관광 자원 개발과 문화·예술 연구, 지역 체육 발전 등의 주제를 놓고 연구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2016년 11월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된 스포츠 플러스를 제외한 두 단체는 이날 최종보고회

에서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활동을 마무리했다. 관광자원 연구회는 대부분 관광자원의 개발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언을 제시했다. 안산통신사는 안산이 문화재 및 역사유적과 역사 인물, 해양 문화가 어우러진 역사·문화적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활용해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단계적 정책 방안을 밝혔다. 스포츠 플러스는 지역의 체육 활성화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체육계 현황 분석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에 집중했다.

#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추천하는 과일 + 채소



### \* 시금치의 효능

#### 등맥경화 예방효과

시금치에 많이 함유되어있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의 상승효과 덕에 등맥경화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체력 향상 효과

시금치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B군과 칼슘은 피로회복과 체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 \* 맛있는 시금치 고르는 방법

- 잎이 진한 녹색이고 두꺼운 것이 좋습니다.
- 포기가 작고 줄기가 짧은 시금치가 좋습니다.
- 뿌리에 붉은색이 선명한 것이 망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좋습니다.

### \* 맛있는 시금치 신선하게 보관하는 법

-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신문지로 싸서 비닐에 넣은 후 냉장고에 세워서 보관해주세요.
-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쳐서 물기를 짰 후 냉동고에 보관하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튼튼한 뽀빠이의 비밀인 시금치!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입하세요.

# 아리송한 맞춤법을 알려주는 '브라보 Talk'

송년회다 뭐다 바쁘게 지냈는데 **금세** 1월이네. 오후 02:10

맞아.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흐름은 더 빠르게 느껴진다더니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 오후 0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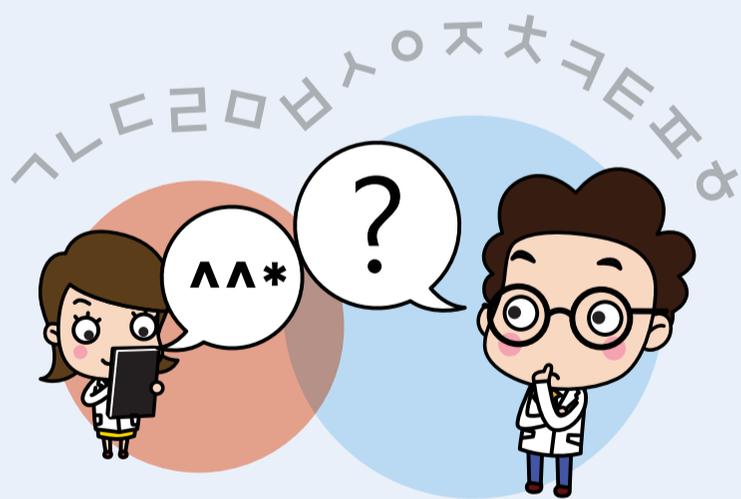
올해는 연초에 세운 계획을 무리하지 말고 차근차근 지켜나가야겠어. 오후 02:11

ㅎㅎ 그래, 너무 거창한 계획을 세우면 현실감이 떨어져 지키기 어려우니까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은 거 같아. 오후 02:12

나도 올해는 주회 경기 운동과 남편과 월회 여행하기를 계획했는데 내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옆에서 짹짹이 잔소리해줘. 오후 02:12

그래, 서로 격려하며 성공할 수 있도록 돕자. 한달 한달 계획을 이루었을 때 스스로에게 보상해주는 것도 좋은 자극제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나니 계획에 대한 **설렘**이 생기는 걸. 오후 02:13

전송



## 금세는 '금세'라고 써야 맞습니다.

'금세'는 '지금 바로'의 뜻으로 쓰이는 부사로 '금시에'가 줄어든 말입니다.

예) 소문이 금세 퍼졌다. / 냉장에서 꺼낸 얼음이 금세 녹았다.

'금세'는 물건의 값, 또는 물건 값의 비싸고 싼 정도를 나타냅니다.

예) 금세도 모르고 싸다 한다. / 금세(를) 치다.

## 설렘은 '설렘'으로 써야 맞습니다.

'설렘'은 '마음이 가라앉지 아니하고 들떠서 두근거리다.'라는 표현을 할 때 쓰입니다.

'설렘'의 표준어는 '설레다'이므로 명사형도 '설렘'이 맞습니다.

예) 첫 아이를 안았을 때의 설렘 / 당신이 기억하는 설렘의 기억은 무엇인가요?



# 엄니들의 이야기

## 대부도 할머니들의 통합자서전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공모사업, 대부도에 살며 가족을 지켜 온 삶을 담다

“ 살아 온 이야기를 글로 표현하면 책 몇 권은 족히 될 거야 ”

우리네 어머니들은 지난했던 삶의 여정을 이렇게 표현한다. 대부도에서 태어나거나 대부도로 시집와 한평생을 그곳에서 살면서 일하고 살림하며 자식들을 키워낸 어머니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통합자서전으로 출간됐다. 대부도에서 나고 자라 75세인 현재까지 대부도에서 살고 있는 진기순 어머니. 진 어머니는 통합자서전에서 서른다섯 나이에 미용 일을 배워 섬 유일의 사진사인 남편과 대부도, 선감도, 선재도 등 섬 곳곳의 결혼식에 출장을 다녔던 시절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이 당시만 해도 섬 안에 예식장이 따로 없어 마을 유일의 사진사였던 남편은 기념촬영을 하고 진 어머니는 신부화장과 머리를 했다고 한다. 쪽배를 타고 선재도를 건너 다녔던 시절 그 배의 선장 결혼식이 선재도 초등학교에서 열렸을 때를 회상하는 진 어머니의 기억은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선장이 신랑이라 배는 뜨지 못했고 간조 때를 기다렸다

가 추운 겨울 찰랑거리는 바다 물속을 건너며 미끄러지기도 여러 번 온 몸이 언 채로 결혼식장에 도착해 곱은 손으로 신부단장을 어렵게 했던 일, 눈보라 속을 뚫고 집으로 돌아올 때 통통배 엔진이 꺼져 바다에 빠져 죽을 뻔 했던 사연 등은 추억이 되어 자서전에 기록됐다. 갯일로 들일로 잠시도 잠을 낼 수 없을 만큼 바빴던 마을 어머니들은 해가 저물어 머리하러 오곤 했는데 파마하는 사람이나 해주는 사람 할 것 없이 파마 맡은 채 같이 잠들기 일수였다는 이야기는 일에 치여 살던 어머니들의 고단했던 삶을 보여준다. 대부도할머니들의 통합자서전 「엄니들의 이야기」는 지역의 평범한 어머니들의 삶을 조명하는 기록물이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가족을 우선시하며 희생적인 삶을 살아 온 어머니들이 지나온 삶을 긍정적으로 되돌아보고 자긍심을 높여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안산시 여성비전센터가 2015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창의공모사업에 응모해 선정되면서 마련됐다.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농번기를 피해 하루 3시간씩 105일간 대부 북11통 여성경로당 할머니 30명을 대상으로 김용호, 백경주, 최영환, 김정하 작가가 함께 해 글쓰기, 그림그리기와 인터뷰 등의 형태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여하신 할머니 열 한 분의 인생이야기는 통합자서전으로 출간돼 지난 12월 18일 자서전 출간을 기념하는 북 콘서트와 그림전시회에서 대중에게 공개됐다. 안산시 관계자는 “대부도할머니들의 통합자서전 ‘엄니들의 이야기’는 유명 기업인이나 정치인의 기록이 아니고 어르신들의 평범한 삶에 대한 기록으로서 시대상과 생활상이 녹아있어 지역사료로 활용하는 데에도 손색이 없고 어르신들의 삶의 애환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잔잔한 웃음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미란 명예기자\_why0218@naver.com



## ‘보치아’를 아시나요?

경기도 보치아동호인들의 축제  
‘2015 경기도지사배 보치아대회’



보치아는 표적구에 공을 던져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하여 승패를 겨루는 경기도 겨울 종목인 컬링과 비슷한 방식으로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특수 경기이다. 대한민국 보치아 대표팀은 세계 최고의 실력자들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 안산시 보치아팀 역시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많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경기도 내 장애인들 간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을 증진하며 대회를 통해 경기력 향상을 꾀함으로써 훌륭한 선수들을 많이 배출해 내고 있다. 지난 21일 경기도 동호인들의 축제 ‘2015 경기도지사배 보치아대회’가 안산시 감골체육관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많은 참가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모인 가운데 오전 11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10개 시군(안산, 광명, 안양, 시흥, 오산, 부천, 화성, 평택, 수원, 성남), 3개 시도(서울, 인천, 전북) 250여 명이 참가하여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 대회는 생활체육 성격의 대회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조를 이루어 경기가 진행되었다. 경기도 장애인 보치아 연맹

맹명호 회장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많이 없어지고 바라보는 시선도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장애인들의 생활과 활동영역에 관한 직접적인 관심도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홍보와 관심이 이런 대회를 통해서라도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대회 소감을 밝혔다. 안산시 장애인 체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고윤석 도의원은 “예전 어르신 식사 봉사를 갔다가 보치아를 알게 되었고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연습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을 보면서 고맙고 감사함에 고개가 절로 숙여지게 합니다.”라며 안산 장애인 체육인들에 대한 자긍심을 나타내 보이기도 했다. 이날 경기결과 2인조에서 안산시 A팀(김남기·천미진)이 1위, 안산시 B팀(김정완·김은선)과 서울시(이용우·이은진)가 각각 2·3위를 기록했다. 3인조는 전북·시흥·화성이 각각 1·2·3위를 차지했다.

김 선 명예기자\_itsumo9011@naver.com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_econojin@naver.com

## 단원고 416교실은 중요한 역사적 현장 단원고 기억교실 보존을 위해 ‘함께한 사람들’



“

단원고 교실은 참사의 현장입니다.

아픈 현장이지만 그대로 보존 되었을 때, 생명 존중의  
교육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세월호 유가족들과 뜻이 있는 시민들은 단원고 416교실 지키기 피켓시위에 함께 참여했다. 특히 이날은 지역 마을공동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함께해 조금은 더 따뜻한 시간이 됐다. 최근 수능을 본 고3 학생부터 30·40대 엄마들이 참여해 단원고 교실을 존치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공감하며 작은 힘을 보탤다. 추위가 한 풀 꺾였지만 오랫동안 피켓을 들고 서 있으면 저절로 발을 동동 구르게 될 정도의 한겨울 날씨에, 2시간여 동안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최근 한 달이 넘도록 매일 부모님들이 이 일을 해왔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단원고 416교실 보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어렵게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이날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핫팩과 장갑을 말없이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응원했다.

피켓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단원고 416교실을 보존해야 하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봤다. 사1동에서 온 정화영 씨는 “단원고 기억교실에 한번쯤 꼭 가보셨으면 좋겠다. 그 어떤 장소보다 10개 교실에 있던 아이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현장을 보면 세월호 참사가 얼마나 엄청난 비극이었는지 체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초지동에서 온 김미숙 씨는 “상처를 숨기고, 아픈 역사를 덮으려고만 하면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단원고 262명의 학생과 교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교실에서 역사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반성할 때, 비로소 뭔가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함께한 시민들은 단원고 교실이 역사적인 현장으로 지켜졌을 때, 아픈 기억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로 더

튼하게 유지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올해 수능을 마치고 피켓 시위에 참가한 전우란 학생은 “다음 주에도 또 올 생각이다. 미약한 힘이지만 부모님들을 위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이곳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작은 위안이 된다.”고 했다. 어른들이 지고 가야할 짐까지 거뜨하게 짊어지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아이들 뒷모습이 민들레 씨앗처럼 단단하게 작은 희망을 지켜내고 있는 듯했다.

416단원고 교실지키기 시민모임은 단체와 개인을 막론하고 교실 지키기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교실지키기 서명운동, 416교실 토요일, 피켓팅 등 다양한 활동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 지난 달 11일, 세월호 유가족과 416교실 지키기 시민모임은 교실 보존을 원하는 시민 1만2천 명의 서명지를 경기도 교육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 온라인 서명사이트(<http://goo.gl/forms/emH4noFQ8n>)에서 단원고 416교실을 지키기 위한 서명운동도 한창 진행되고 있다.

단원고 2학년 교실을 둘러본 소설가 김탁환 씨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 와서 걸상에 앉아보고,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느끼며 깊게 심호흡하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의 일상을 그럴 수 있다. 아무리 뛰어난 비유나 상징을 동원한 추모공간도, 생생한 교실에 미치지 못한다.”

송보림 명예기자 \_ treehelper@naver.com

## 가정을 잃어버린 아이들과 따뜻한 가족의 정을 나누는 그룹홈

# 상록수 마을

그룹홈 ‘상록수마을’에는 6살 꼬마부터 22살 청년이 7명, 스스로를 청지기라 칭하는 성기만 목사와 부목사 가족 4명, 2명의 사회복지사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산다. 아이들이 ‘상록수마을’에 오게 된 경위는 다양하다. 부모의 이혼, 폭력, 방임, 유기 등으로 마땅히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지만 부모의 사랑에 굶주린 아이들은 적개심과 반항심 가득한 상태로 이곳에 온다.

성기만 목사는 “시설과 달리 개별적인 정과 보살핌을 받는 아이들은 대개 2~3년이 지나면 안정감을 갖고 생활한다. 이곳에서도 여느 가정과 마찬가지로 갈등과 다툼이 있지만 아이들 스스로 잘 해결해나간다. 안정적인 가정환경이 제공되면 아이들은 잘 자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혼모가 출산한 7살 남자아이가 입소했다. 여기 저기 맡겨져 키워지다가 상록수마을로 오게 되었는데 첫날부터 명랑하고 불임성 있게 생활해 귀여움을 받았다. 그러나 초등학교 입학 후 짝꿍의 물건을 가져오기에 아이의 버릇을 고칠 요량으로 ‘경찰 부른다’고 했더니 ‘다시 안 그러겠다’며 울기에 단단히 혼을 내고 다신 그러지 않기로 다짐을 받았다. 나중에 ‘경찰이 무서워 울었느냐’ 물으니 ‘여기 가족들과 떨어져서 또 다른 시설로 가게 되는 게 더 싫어서’라고 했다고 한다.



작은 몸만큼이나 여린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감당하기에 부모의 부재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과 다른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과 괴리감, 부모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버림받은 자신에 대한 비판은 아이들을 갈수록 피폐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런 아이들이 물건을 훔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마음 깊숙이 눌러 놓은 외로움과 관심 받고 싶은 마음이 여과 없이 분출되는 것이리라.

안산에는 고아원이 없다. 그러나 ‘상록수마을’과 같은 그룹홈이 상록구에 15개소, 단원구에 15개소(피학대 아동을 위한 비공개 그룹홈 1개소 포함)가 있다. 전국에 있는 그룹홈은 480여 개소, 그 중 경기도에 127개소가 있는데 안산에 30개소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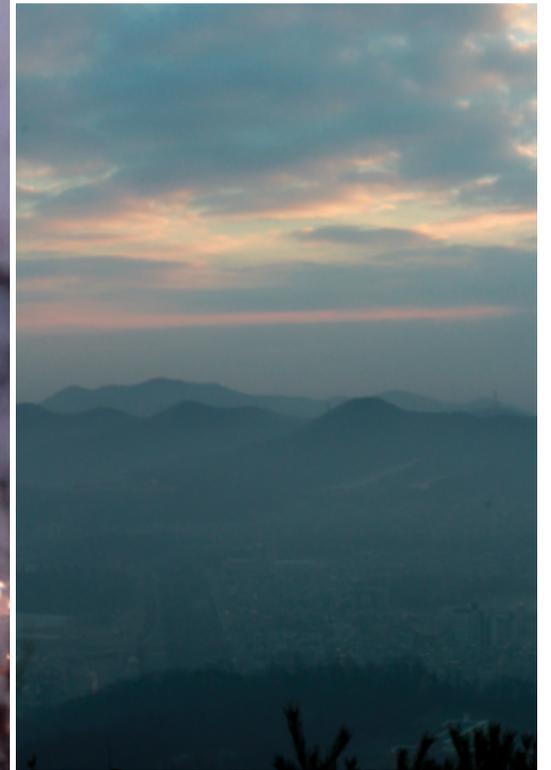
‘그룹홈’의 장점은 보호시설과 달리 일반 가정의 형태로 지역사회에 위치해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안정감을 준다는 데 있다. 아이들은 시설에 산다는 것 자체로 주눅이 드는데 또래 친구들에게 시설에 드나드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일반 가정 형태의 그룹홈은 그 대안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곳에 대한 지원은 빈약해 지인들의 도움으로 꾸려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24시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언제까지 희생과 사랑을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그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

☎ 문의 : 상록수마을(031-406-5995)  
김은미 명예기자 \_ iam34@hanmail.net

2016년  
첫 날  
안산

뿌영계 새해를 연 2016년 첫 날.  
아직은 미명이다.  
그러나 밝은 태양이 안산 곳곳을 환하게 비추길 기대해 본다.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_hanmarus@naver.com



Photos in Ansan  
사진으로 보는 안산

시화  
나래  
조력  
공원

바다가 있는 공원은 흔치 않다.  
바닷가의 낭만과 함께 75m 전망대의 아찔함도 즐겨보자.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_econojin@naver.com





황·부·건

### 창원

대기업에서 31년 이상 근무하고 회사 수주부진, 재무구조 악화 및 업황불황으로 인해서 2014년 말에 희망퇴직을 하였다. 퇴직 후 아르바이트 및 건설현장에서 여러가지 일을 해보았다. 그러던 중 안산시화공단 내에 예전의 직장 직속상사인 사장님이 내가 그만 둔 것을 알고 일하러 오라고 했다. 창원에 근무할 때에는 서울 사무소에 근무하려는 꿈은 가지고 있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회사에 다닐 때 생산 제품과 하는 업무도 같았으니 좋고, 수도권에서 생활하게 되어서 더욱 좋았다. 11월 2일이 월요일이었으니 그날부터 일하게 되었다. 반월역 근처인 상록구 건건동에 전세를 얻었다.

가끔씩 사장님이 진행 업무와 지시사항을 물으셨다. 제대로 되지 않고 진행이 늦어지거나 업무 방향이 틀리면 엄중한 문책을 하셨다. 문책의 강도는 인격을 무시할 정도의 언행이었다. 이럴 때는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었다. 도저히 더 이상 근무 했다가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회사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12월 7일 월요일 사장님께 그만두겠다고 말씀 드렸다.

지금 생각 해보니 사장님의 지시나 언행은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틀린 생각은 아니었다. 단지 나와서 생각이 다르고, 그 분이 20년 가까이 경영한 회사 방침을 존중해주고 내 스스로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리스 신화에 시지프스는 신에게 맞선다는 이유로 거대한

바위를 밀어서 산꼭대기 정상까지 올리는 일을 되풀이하며 사는 신화속 인물이다. 온 힘을 다해 바위를 밀어 올리면 바위는 제 무게만큼 다시 밑으로 굴러 떨어진다. 시지프스는 바위가 다시 굴러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평생 그 일을 되풀이하며 살아간다.

전 직장에서 나는 시지프스처럼 바위를 미련스럽게 밀어 올리기만 했다. 또 다시 일을 한다 해도 무료하고 무의미한 시지프스가 될 수 밖에 없다. 사르트르는 인생은 생(生)과 사(死) 사이에 선택의 연속이라 말했다.

11월에 일한 회사가 잘못된 선택이었다면 빨리 잊고 새롭고 창의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안산에는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중앙도서관 같은 좋은 시설이 있었다. 앞으로는 안산천이 흐르고 도서관 주위의 도로는 말끔하게 포장되어 있고, 도서관 건물과 바깥 풍경도 멋있게 디자인되어 있어 시민 누구나도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함을 느꼈다. 안산에서 새롭게 꿈을 꾸니 마냥 즐겁기만 하다.

생활 속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무료 구독신청 031-481-2042, E-mail : bravo@iansan.net

## 알아두면 유용한 소식 in 안산

< 丙申年이 밝았습니다 >

글·그림 이영호(kaljebi05@naver.com)





**「따뜻한 에너지의 행복한 전달」**  
**에너지바우처**  
**11월부터 신청하세요**

“국민 행복을 위해 올 겨울부터 따뜻한 난방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이면서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1급~6급 등록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통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급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 이상 가구
지원금액	81,000원	102,000원	114,000원

**신청기간** | 2015년 11월부터 ~ 2016년 1월말까지      **사용기간** | 2015년 12월부터 ~ 2016년 3월말까지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가족, 친족 또는 담당공무원이 대리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홈페이지 [www.energyv.or.kr](http://www.energyv.or.kr)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2016년 상반기

# 여성비전센터 수강생 모집안내

**수강생 모집**

- 모집인원 : 100개 과정 1,959명
- 모집일정 : 우선모집 : 1. 14(목) 9:00 ~ 1. 15(금) 18:00 (수강료면제대상 방문 선착순 접수)  
 일반모집 : 1. 18(월) 9:00 ~ 1. 22(금) 18:00 (인터넷 선착순 접수)  
 추가모집 : 1. 25(월) 9:00 ~ 1. 26(화) 18:00 (인터넷 선착순 접수)

< 일반모집 일정 >

모집과정	인터넷 접수시간
직업전문(조리)	1. 18.(월) 9:00 부터
직업전문(패션)	1. 18.(월) 11:00 부터
직업기초과정	1. 18.(월) 13:00 부터
사회문화과정	1. 18.(월) 15:00 부터

1. 22(금) 18:00 마감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016. 2. 1 ~ 6. 17(과목별 8주 ~ 20주)
- 교육대상 : 만 18세 이상 안산시민(남성 가능) \*피부마용자적 남성 제한

**유의사항**

- 온라인 수강신청 시 수강료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또는 공인인증서 사전준비 필수
- 자세한 사항은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8(고잔동)  
 t. 031-481-2761~5 / f. 031-481-3636 / <http://wm.iansan.net>

안산도시공사 Ansan Urban Corporation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2016. 01. 01부터  
**즉시콜 운영**

# 하모니 콜센터

예약 문의 전화 ☎ 1588-5410

**하모니콜 이용안내**

① 이용대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은 자
- 노약자** 65세 이상으로 전문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혼자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자
- 보호자** 상기 이용대상자와 함께 최대 2인까지 동승 가능  
 \*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보호자는 2인을 초과하여 탑승은 불가합니다.

② 운행지역

지역	내용
안산시 전지역	1일 편도 2회 운행
안산 인접지역 생활권	안양, 시흥, 수원, 화성, 군포, 광명
관외지역 진료목적	서울 및 인천, 부천, 의왕
대중교통 환승지	인천항, 평택항,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

\* 관외지역 운행 : 대학부속병원(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전문병원) 및 전문의료시설에서 재활치료 및 진료목적에 한하여 운행  
 \* 고속도로,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료, 대기료는 이용자 부담(인천공항은 왕복통행료)

안산그리움을 꿈꾸는 도시 사각 중심 안전특별시

# 2016년 안산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 재안내

안산시에서는 연간 170억원에 달하는 하수도 사업의 재정 적자를 개선하고 하수도 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정기적인 요금 현실화 계획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를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리오니 시민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요금인상 내역 : 2015년 15%, 2016년 15%

**안산시 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요율표**

업종	변경전 ㎡당 요금		변경후 ㎡당 요금
	구간	현행단가	2016년
가정용	1 - 20	149	170
	21 - 40	220	255
	41 이상	330	385
일반용	1 - 50	270	310
	51 - 100	340	390
	101 - 300	440	510
	301 - 1,000	480	565
	1,001 이상	495	590
대중탕용	1 - 1,000	240	275
	1,001 - 1,500	285	330
	1,501 - 2,000	355	410
	2,001 이상	410	480
산업용 전구간		310	355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031-481-2458